

일부 한방병동간호사의 직무분석

김명자¹ · 김미환² · 정희숙² · 김윤서²

동의대학교 간호학과¹,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병동²

Analysis of the Job of Nurses Working on Oriental Medicine Wards

Kim, Myung Ja¹ · Kim, Mi Hwan² · Jeong, Hee Sug² · Kim, Yun Seo²

¹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²Oriental Ward, Dong-eui University Korean Medical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e's role through job analysis of nursing duties for nurses working on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wards. **Methods:** Major steps in the study included a literature review, description of job activities of nurses on oriental medicine wards, comparative description of the literature, expert tests of validity of derived duties and tasks, and investigation of importance, difficulty and frequency of duties on job list. **Results:** The job of nurses on oriental medicine wards was classified into 12 duties, 59 tasks, and 295 task elements. The 12 duties were nursing assessment, nursing diagnosis, nursing planning, nursing implementation, nursing evaluation, supplies managem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environment, management of documents,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self-development, and nursing activity in oriental medicin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was the duty ranked highest for importance (4.34), 'self-development' was ranked highest for difficulty (3.47), and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was ranked highest for frequency (4.21). **Conclusion:** Basic education for nurses on an oriental medicine unit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riental nursing to be considered as a specialized field. This study contributes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Key Words: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Nurses, Task performance and analysis, Job description, Nurse's rol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한방 의료환경은 1987년 한방 의료보험 및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와 더불어 급격히 다변화하는 추세이다[1]. 또한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질병 양상이 변화하고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과 건강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변화로 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병원 내·외적요구가 증가함으로써[2] 병원경영의 효율적인 변화는 물론

통합적 전인적 보건 의료에 대한 요청도 증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라는 질병 양상변화, 만성질환에 대한 서양 의학적 치료의 한계, 한방 의료제도의 발전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급속히 증가하여 양·한방적 진료를 병행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3]. 이에 따라 한방 의료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방병원 병상수의 급증과 한방 간호 인력도 필요하게 되었고,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4].

주요어: 한의학, 간호사, 직무분석, 직무기술, 간호사의 역할

Corresponding author: Kim, Mi Hwan

Oriental Ward, Dong-eui University Korean Medical Hospital, 62 Yangjung-ro, Jin-gu, Busan 614-710, Korea.
Tel: +82-51-850-8699, Fax: +82-51-867-5162, E-mail: unis2000@hanmail.net

Received: Mar 31, 2015 | **Revised:** Jun 10, 2015 | **Accepted:** Jun 29,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방간호란 한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간호활동이나 간호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방병원에서의 간호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조리, 양생에서도 한의학적 이론 및 방법이 적용된 간호사의 활동 분야를 주 영역으로 한다[5]. 한방간호업무수행의 영역에는 한방기본간호, 한방변증간호, 한방응급간호, 침구, 부항요법, 양생과 조리로 제시되기도 한다[6].

오늘날 한방 의료 자원으로는 침, 뜸, 한방 물리요법, 한약재, 식이요법 등의 전통요법과 근래에 개발된 약침, 추나요법 등의 시술방법이 더욱 치료의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뇌혈류측정기, 맥진도) 등이 한방 치료와 진단에 높은 효율을 올리고 있다[7].

한방간호 관심의 증가와 한방의료자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방간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 부족에 의해 대부분의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는 서양간호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간호사 혹은 실무경험이 있는 보조원 등에 의해 충당되는 등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방 간호사는 별도의 면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이 없는 실정이고, 일반적으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7]. 따라서 한방간호 분야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졸업 후 실무에서 한방간호학 지식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한방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한방간호학에 대한 교육적 배경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학 이론의 임상적용은 물론, 한방병원 간호사로서의 역할부재로 인해 많은 역할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며[8], 한방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실무로 인해 한방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88.3%의 간호사가 임상에서의 한방간호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9], 현재 한방병원 간호사들은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밑바탕이 미비한 채로 간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으며,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96% 이상이 한방간호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양·한방 협진의 증가 및 의료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9]이며, 특히 한방간호와 관련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 한방간호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한방병원에서는 양방을 학습한 간호사들이 서양의학 중심의 간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한방병동 간호업무에 대한 직무 이해가 부족하여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 자체에 대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할정립과 간호업무 파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11].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에 비해 한방 간호사의 한방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12].

실무에서도 한방간호의 영역과 역할업무가 명확하지 못하여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방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갈등을 초래하고 한방간호의 질적 저하와 효율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한방간호교육과 한방간호 업무 분석 등 한방간호사의 역할정립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다[12].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한방간호사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는 역할 정립뿐 아니라 한방간호의 본질을 재확인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간호사 직무분석 연구보고서 [13,14]의 간호표준을 근거로 하여 한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내용과 직무량, 직무특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방병동간호사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한방간호 직무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방병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한방간호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일부 한방병동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간호업무를 파악한다.
- 일부 한방병동간호사의 간호업무 중요도·난이도·수행 빈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한방병동간호사

한방병동간호사는 한방병원의 한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한방병동간호사는 한방병원의 한방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2) 한방간호업무

한방간호란 한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간호활동 및 간호행위로 한방 병·의원에서의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한의학

적 이론 및 방법이 적용된 간호사의 활동분야를 의미한다[5].

3) 직무분석

직무분석(job analysis)이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 특성을 결정하고, 직무별 목적, 주요 활동과 책임, 직무수행 요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규정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직무분석[13] 연구결과와 2012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2차 직무분석[14] 연구결과와 직무분석 분류 체계를 근거로 하여 한방병원 한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ment)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수행빈도를 제시한 것을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방병원 내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Table 1).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 병동에 10명 이상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한방병동을 가진 부산·경남 지역의 3개 한방 병원 총 7개 한방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전수를 의

미한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2000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직무분석[13]과 2012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2차 직무분석[14]의 연구에 의해 개발되고 타당성이 검증된 간호사 직무분석을 근거로 하였다. 2000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직무분석[13]은 간호사 직무를 11개의 임무와 66개의 일, 그리고 493개의 일의 요소로 기술하였다. 2012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2차 직무분석[14]은 DACUM 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였으며, 제시된 간호사의 직무는 8개의 임무와 49개의 일, 그리고 303개의 일의 요소로 기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직무분석[13]과 2012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2차 직무분석[14]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12개의 임무와 59개의 일, 그리고 295개의 일의 요소를 연구도구로 하여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중요도는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말하며,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환자 등에게 위협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말한다. 난이도는 직무수행 시 간호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말하며, 수행빈도는 똑같이 반복되는 도수, 잦기를 나타내는 말로 제시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요소를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가에 대한 측정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거나 많음을 의미한다.

Table 1. Research Proceedings

Stage	Period	Process	Method	Content
1st stage	2014 5/15~5/30	Pre-investigation	Literature review	· Previous research review · Previous research comparison analysis · Nurse job list description
2nd stage	6/2~6/20	Job content description	Oriental ward nurses work record composition	· Description of work content of Oriental ward nurses - time-based
3rd stage	6/20~6/30	Job content (duty arrangement)	Job mapping	· Work oriented classification · Duty, task, task element elicitation
4th stage	7/1~9/15	Validity verification of task element confirmation	Expert group meeting Modification after duty, task, and task element review	· Validity test with five experts (head nurse of oriental medicine with over 5 years experience) and a nursing professor meeting. · Analysis table decision of duty, task, task element -Job analysis list confirmation
5th stage	9/17~11/23	Questionnaire survey & analysis	Oriental ward nurses questionnaire	· Criticality, Difficulty, Frequency survey

4. 연구진행

본 연구자들은 한방병동간호사 직무분석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비교확인법과 최초분석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직무분석 사전 조사로 선행연구자료인 2000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직무분석[13] 연구결과와 2012년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간호사 2차 직무분석[14]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한방병동 간호사의 1차 직무목록을 작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D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3개 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총 31명의 간호사들에게 시간의 분단위로 자신의 업무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조사표를 일주일동안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업무목록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문헌고찰을 통해 얻은 임상간호사 직무목록과 2단계를 통해 수집한 한방병동 간호사 업무목록을 연계하여 2차 직무목록을 작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임상전문가 회의를 통해 2차 직무목록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ment) 분석표를 결정하고 연구진이 최종 직무목록을 도출하였다.

5단계에서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한방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조사하였다.

5.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는 엑셀과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과 한방 관련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직무내용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하였고, 매핑은 엑셀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1단계

2014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간호사의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로 간호와 보건 의료 분야 직무분석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2000년 간호사 직무분석[13] 연구결과와

2012년 간호사 2차 직무 분석[14]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간호사 직무 분석[13,14]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방병원 경력 5년 이상, 임상경력 20년 이상인 임상전문가 2명과 간호학교수 1인이 한방병원 업무 경험과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한방병동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목록을 작성하였다. 직무목록은 임무(duty) 14개, 일(task) 65개, 일의 요소(task element) 355개로 구성되었다.

임무(duty)는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물품관리’, ‘인력관리’, ‘환경관리’, ‘문서관리’, ‘협력관계형성’, ‘자기 계발하기’, ‘한방간호업무’, ‘기록업무(전산)’, ‘협진 관련업무’ 등의 총 14개가 도출되었다. ‘간호사정’에서 ‘관찰하기’를 포함하여 6개의 일(task), ‘간호진단’에서는 ‘진단 내리기’ 1개의 일, ‘간호 계획’에서는 ‘목표 설정하기’를 포함하여 2개 일이 도출되었다. ‘간호 수행’에서는 ‘측정하기’ 포함 32개의 일, ‘간호평가’는 ‘목표달성’ 등 3개의 일, ‘물품관리’에서는 ‘집기비품 관리하기’ 등 5개의 일이 도출되었고, ‘인력 관리’는 ‘위임하기’ 등 3개, ‘환경관리’는 ‘감염관리’ 등 3개의 일이 도출되었다. ‘문서관리’에서는 ‘보고하기’ 등 2개, ‘협력관계형성’에서는 ‘업무 협조하기’ 등 3개의 일이 도출되었고, ‘자기 계발’에서는 ‘전문성 향상하기’ 1개, ‘한방간호업무’에서는 ‘한방 투약하기’ 등 2개, ‘기록업무’에서는 ‘전산업무’ 1개, ‘협진 관련 업무’에서는 ‘협진 환자 관리’ 1개의 일이 도출되었다.

2. 2단계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D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3개 한방 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총 31명의 간호사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분단위로 업무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조사표를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한 후, 근무 중 업무 수행 시간대별로 업무 형태가 바뀔 때마다 모든 업무 내용을 상세히 나열식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한방병동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수락한 대상자에 한해 사전 동의 후 시행하였다. 조사표 작성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주일이었다.

기록한 조사표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으며, 해당 기록을 임상전문가 2인이 확인하여, 불확실하거나 의문이 나는 경우 직접 그 항목에 대해 작성자에게 재확인하였다. 조사표는 총 217장으로 6,293개의 업무목록들이 도출되었다.

해당 업무목록에서 유사한 의미의 업무목록은 하나의 요소로 통합하고, 중복된 목록은 삭제하여 정리한 총 5,938개의 업무 목록을 1단계의 355개 일의 요소와 연계하였다.

3. 3단계

1단계에서 도출한 한방병동 간호사 직무목록과 2단계에서 업무목록을 연계하여 간호사의 임무, 일과 일의 요소로 구성된 직무목록을 다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의 요소 중 10항목을 추가하고 53항목은 삭제하였으며 10항목을 변경하였다. 추가된 10항목 중 ‘섭취량 배설량 재기’, ‘통증관리하기’ 등 2항목은 2000년 국시원 자료와 2단계에서 도출된 업무목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문제 상황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기’, ‘문제해결 시 타부서와 협력하기’, ‘영양 상태 확인하기’, ‘보행유지하기’, ‘타 의료기관 의뢰하기’, ‘처치 전후 교육하기’, ‘적절한 억제법 사용하기’, ‘퇴원 후 추후관리 설명하기’ 등 8개 항목은 2단계 업무 목록에만 제시되었다. 1단계 직무목록에는 있으나 2단계 업무 목록과 연계할 수 없는 ‘의미있는 자료 추출하기’, ‘인지 재구조화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등의 항목은 삭제하였다. 변경된 10개 항목은 ‘속 관리하기’에서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인지하기’로 바뀐 일의 요소 등이다.

이 과정에서 총 2개의 임무, 6개의 일과 53개의 일의 요소가 제외, 10개의 일의 요소가 추가되어 총 12개의 임무, 59개의 일과 312개의 일의 요소로 구성된 2차 직무목록이 결정되었다.

4. 4단계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최소 18년, 최대 32년 임상경력에, 최소 5년, 최대 10년 한방병동 경력을 가진 수간호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임상전문가 5인과 간호학 교수 1인의 회의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도출된 임무, 일과 일의 요소를 포함하는 최종 직무목록을 설문항목으로 확정하였다.

2차 직무목록에서 임상전문가 2인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목록은 삭제하는 것을, 한 명의 전문가라도 추가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목록은 추가 혹은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전문가가 함께 최종 직무목록을 확정하였다.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 집담회 등에 참여하기’, ‘환자상태에 대한 전화 상담하기’ 등 22항목이 삭제되었으며, ‘목표설정하기’, ‘창상 부위 피부 간호하기’ 등의 6항목이 추가되었다. ‘신환의 카테스 정리

하기’는 ‘입원 시 간호하기’로 변경하였고, ‘금일 퇴원예정자의 퇴원간호 기록지 확인하기’, ‘퇴원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항목이 ‘퇴원 관련 항목’으로 1개로 통합하였다. 삭제된 항목은 모두 다른 문항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물품관리’, ‘인력관리’, ‘환경관리’, ‘문서 관리’, ‘협력관계형성’, ‘자기개발하기’, ‘한방고유 업무’의 총 12개의 임무, 59개의 일과 295개의 일의 요소를 포함하는 직무 목록을 도출하였다.

5. 5단계

2014년 9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한방 병원에서 6개월 이상 한방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0명을 대상으로 한방병동 간호사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에 관한 직무분석 목록 설문지 70부를 배부하고, 총 69부 회수하여 98.5% 응답률을 보였고 총 69부의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8.7세였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이 34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서는 3년제 간호대학 졸업이 47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간호대학 졸업은 20명(29.0%)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 60명(87.0%)이었고, 주임간호사 7명(10.1%)이었고, 한방근무경력에 있어서는 3년 미만 46명(66.7%),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14명(20.3%),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 7명(10.1%), 7년 이상이 2명(2.9%) 순이었다.

(2) 한방간호 교육 관련 특성

대상자의 한방간호 교육 관련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대학에서 배운 한방간호 교과목 수는 1과목이 35명(50.7%)으로 가장 높았고, 교과목으로 배운 적이 없는 대상자도 30명(42%)이 있었다. 공식적 한방간호교육 및 세미나시간은 5시간 미만인 39명(56.5%), 5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이 21명(30.4%)이었다. 한방간호지식을 배우는 경로는 병동내 집담회를 통해서가 53명(36.6%), 병동이 아닌 병원 내 공식적 교육을 통해서가 51명(35.2%)이었다. 비공식적 한방간호 관련 교육시간으로 5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은 24명(34.8%), 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8.7±5.83
	≤ 24	15 (21.7)
	25~29	34 (49.3)
	30~34	10 (14.5)
	35~39	6 (8.7)
	≥ 40	4 (5.8)
Education	College	47 (68.1)
	University	20 (29.0)
	Master	1 (1.4)
	Doctor	1 (1.4)
Position	Staff nurse	60 (87.0)
	Charge nurse	7 (10.1)
	≥ Head nurse	2 (2.9)
Clinical experience (year)		5.11±5.03
	≤ 2	22 (31.9)
	3~4	20 (29.0)
	5~6	15 (21.7)
	≥ 7	12 (17.4)
Oriental medicine experience (year)		2.72±3.62
	≤ 2	46 (66.7)
	3~4	14 (20.3)
	5~6	7 (10.1)
	≥ 7	2 (2.9)

시간 미만은 20명(29.0%)이었다. 한방간호지식을 배우는 경로는 실무 중 한의사에게 습득하는 경우가 52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독학도 40명(36.4%)이 있었다. 한의사와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경험은 있는 경우가 52명(75.4%)이 있었다. 한의사와 의사소통 어려웠던 내용은 한약처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26명(29.9%), 한문이 많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19명(21.8%)이었으며, 한방의학용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16명(18.4%)이 있었다. 한의사와 의사소통 잘되었다고 한 간호사 중에는 원래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11명(68.8%)이 답변했다. 한방간호지식에 대한 자가 평가에서 52명(75.4%)이 보통 이상은 된다고 하였다.

2)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

(1) 임무(duty)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

한방병동 간호사의 임무 12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들의 임무의 중요도에서는 ‘협력관계형성(4.3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간호수행(4.09)’, ‘문서관리(4.08)’, ‘간호평가(4.06)’, ‘한방 고유업무(4.06)’, ‘간호사정(4.02)’, ‘물품관리(3.94)’, ‘간호진단(3.91)’, ‘자기 계발

하기(3.89)’, ‘인력관리(3.78)’, ‘간호계획(3.78)’, ‘환경관리(3.09)’ 순으로 나타났다.

임무의 난이도에서는 ‘자기 계발하기(3.47)’, ‘협력관계형성(3.40)’, ‘간호진단(3.33)’, ‘인력관리(3.22)’, ‘간호평가(3.19)’, ‘환경관리(3.14)’, ‘간호계획(3.13)’, ‘간호수행(3.07)’, ‘물품관리(3.02)’, ‘간호사정(2.93)’, ‘문서관리(2.90)’, ‘한방 고유업무(2.74)’ 순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수행빈도에서는 ‘협력관계형성(4.21)’, ‘문서관리(3.95)’, ‘환경관리(3.89)’, ‘간호평가(3.87)’, ‘물품관리(3.80)’, ‘한방 고유업무(3.79)’, ‘간호사정(3.72)’, ‘간호진단(3.60)’, ‘간호계획(3.50)’, ‘자기 계발하기(3.47)’, ‘간호수행(3.41)’, ‘인력관리(3.33)’의 순이었다.

(2) 일(task)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

간호사의 임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12개의 임무를 59개의 일로 분류하였다. 59개의 일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의 평균은 Table 5와 같다.

임무별 일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간호사정’과 관련해서는 ‘측정하기(4.21)’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간호진단’에서는 ‘진단내리기(3.91)’, ‘간호계획’에서는 ‘간호중재 확인하기(3.78)’, ‘간호수행’에서는 ‘응급상황 대처하기(4.43)’, ‘간호평가’에서는 ‘목표달성 확인하기(4.09)’, ‘물품관리’에서는 ‘약품관리하기(4.11)’가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인력관리’에서는 ‘직원교육하기(3.97)’, ‘환경관리’에서는 ‘사고예방(4.35)’, ‘문서관리’에서는 ‘보고하기(4.14)’, ‘협력관계형성’에서는 ‘정보공유하기(4.39)’, ‘자기 계발하기’에서는 ‘전문직 역량 강화하기(3.89)’, ‘한방고유업무’에서는 ‘한방투약하기(4.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난이도에 관련하여 ‘간호사정’에서는 ‘정보분석하기(3.35)’, ‘간호진단’에서는 ‘진단내리기(3.33)’, ‘간호계획’에서는 ‘간호중재 확인하기(3.38)’, ‘간호수행’에서는 ‘조직관류 조절하기(3.48)’, ‘간호평가’에서는 ‘목표달성 확인하기(3.25)’, ‘물품관리’에서는 ‘의료장비 관리하기(3.17)’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인력관리’에서는 ‘평가하기(3.42)’, ‘환경관리’에서는 ‘사고예방(3.20)’, ‘문서관리’에서는 ‘보고하기(3.15)’, ‘협력관계형성’에서는 ‘정보공유하기(3.43)’, ‘자기 계발하기’에서는 ‘전문직 역량강화하기(3.47)’, ‘한방고유업무’에서는 ‘한방 간호교육(2.85)’이 난이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수행빈도에 관련하여, ‘간호사정’에서는 ‘측정하기(4.00)’, ‘간호진단’에서는 ‘진단내리기

Table 3. Oriental Nursing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N=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iental nursing subjects studied at the university	None	30 (43.4)
	1	35 (50.7)
	≥ 2	4 (5.8)
Formal oriental nursing education & seminar hours	None	1 (1.4)
	≤ 4	39 (56.5)
	5~9	21 (30.4)
	10~14	6 (8.7)
	15~19	1 (1.4)
	≥ 20	1 (1.4)
Learning path of oriental nursing knowledge*	Formal education out-of-hospital	32 (22.1)
	Formal education in hospital	51 (35.2)
	Ward conference	53 (36.6)
	Other	9 (6.2)
Informal education hours related to oriental nursing	None	13 (18.8)
	≤ 4	20 (29.0)
	5~9	24 (34.8)
	10~14	7 (10.1)
	15~19	3 (4.3)
	≥ 20	2 (2.9)
Learning path of oriental nursing knowledge*	From oriental doctor in practice	52 (47.3)
	Self-study	40 (36.4)
	Other	18 (16.4)
Experience in which communication with oriental doctor was difficult	Yes	52 (75.4)
	No	17 (24.6)
Content in which communication with oriental doctor was difficult*	When you are unsure about an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26 (29.9)
	When you can't interpret because of a lot of Chinese characters	19 (21.8)
	When he said the blood spot	9 (10.3)
	When you were misre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and efficacy of oriental medicine	15 (17.2)
	When you cannot understand oriental medical terms	16 (18.4)
	Other	2 (2.3)
Content in which communication with oriental doctor was good*	Original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good	11 (68.8)
	Communication is no problem because knowledge related to oriental nursing is high	1 (6.2)
	Other	4 (25.0)
Evaluation one's oriental nursing knowledge	I have no idea	12 (17.4)
	I don't know	5 (7.2)
	Moderate	26 (37.7)
	I know well	25 (36.2)
	I know very well	1 (1.4)

*Multiple choices.

(3.60)', '간호계획'에서는 '간호중재 확인하기(3.61)', '간호수행'에서는 '처방 관련 간호(4.23)', '간호평가'에서는 '추후관리하기(3.68)', '물품관리'에서는 '집기기구 관리하기(4.14)'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인력관리'에서는 '직원교육하기(3.48)', '환경관리'에서는 '치료적 환경 관리하기(3.94)', '문서관리'에서는 '간호정보 입력하기(4.33)', '협력관계형성'에

서는 '정보공유하기(4.39)', '자기 계발하기'에서는 '전문직 역량 강화하기(3.47)', '한방고유업무'에서는 '한방투약하기(4.45)'가 수행 빈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59개 일(task) 중 'D14 응급상황 대처하기(4.43)'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D35 처방 관련간호(4.40)', 'J2 정보공유하기(4.39)',

Table 4. Degree of Criticality, Difficulty and Frequency of Each Duty

(N=69)

Duty	Criticality		Difficulty		Frequency	
	M±SD	Rank	M±SD	Rank	M±SD	Rank
A. Nursing assessment	4.02±0.68	6	2.93±0.45	10	3.72±0.51	7
B. Nursing diagnosis	3.91±0.02	8	3.33±0.01	3	3.60±0.01	8
C. Nursing planning	3.78±0.51	10	3.13±0.44	7	3.50±0.09	9
D. Nursing implementation	4.09±0.59	2	3.07±0.40	8	3.41±0.56	11
E. Nursing evaluation	4.06±0.95	4	3.19±0.45	5	3.87±0.12	4
F. Supplies management	3.94±0.49	7	3.02±0.17	9	3.80±0.30	5
G.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3.78±0.52	10	3.22±0.26	4	3.33±0.10	12
H. Management of environment	3.09±0.68	12	3.14±0.14	6	3.89±0.34	3
I. Management of documents	4.08±0.74	3	2.90±0.20	11	3.95±0.44	2
J.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4.34±0.68	1	3.40±0.23	2	4.21±0.52	1
K. Self-development	3.89±0.26	9	3.47±0.14	1	3.47±0.14	10
L. Oriental nursing activity	4.06±0.15	4	2.74±0.18	12	3.79±0.44	6

‘D5 투약하기(4.37)’, ‘H2 사고예방(4.35)’ 순으로 나타났고, ‘G2 평가하기(3.54)’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59개 일(task) 중 ‘D21 조직관류 조절하기(3.48)’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D25 수술간호하기(3.46)’, ‘J2 정보공유하기(3.43)’, ‘G2 평가하기(3.42)’, ‘C2 간호중재 확인하기(3.38)’ 순으로 나타났으며, ‘A3 측정하기(2.42)’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별 일의 수행빈도와 관련하여 59개의 일(task) 중 ‘L1 한방투약하기(4.45)’가 가장 수행빈도가 높고, ‘J2 정보공유하기(4.39)’, ‘I4 간호정보 입력하기(4.33)’, ‘D35 처방 관련 간호(4.23)’, ‘D27 입퇴원 관리하기(4.15)’ 순으로 나타났고, ‘D25 수술간호하기(2.46)’가 수행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의 요소(task element)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

한방병동 간호사의 59개의 일에 대해 총 295개의 일의 요소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295개의 일별 일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59개의 일에 대해 일의 요소를 결정하였는데, ‘관찰하기’에는 17개, ‘정보듣기’에는 11개, ‘측정하기’에는 8개, ‘검사결과 확인하기’에는 9개, ‘정보 분석하기’에는 1개, ‘진단내리기’

에는 2개, ‘목표설정하기’에는 3개, ‘간호중재 확인하기’에는 1개, ‘검사물 채취하기’에는 3개, ‘검사 관련 간호하기’ 11개, ‘관찰하기’에는 12개, ‘투약하기’에는 9개, ‘위생 간호하기’에는 5개, ‘호흡유지하기’에는 4개, ‘배설유지하기’에는 5개, ‘피부통합성 유지하기’에는 5개, ‘영양관리하기’에는 5개,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에는 4개, ‘부동관리하기’에는 3개, ‘응급상황 대처하기’에는 5개, ‘정서적 지지하기’에는 2개, ‘사회적 지지하기’에는 2개, ‘의뢰하기’에는 4개, ‘대상자 교육하기’에는 18개, ‘상담하기’에는 3개, ‘치료적 의사소통하기’에는 2개, ‘신체적 안위 증진하기’에는 6개, ‘안전관리하기’에는 8개, ‘수술간호하기’에는 2개, ‘조직관류 조절하기’에는 3개, ‘입퇴원 관리하기’에는 7개, ‘자가간호 촉진하기’에는 1개, ‘뇌순환 촉진하기’에는 1개, ‘간호수행시 법적의무 완수하기’에는 4개, ‘전문직 자세로 일하기’에는 2개, ‘간호윤리에 기초하여 환자 돌보기’에는 3개, ‘처방 관련간호’에는 3개, ‘목표달성 확인하기’에는 1개, ‘추후관리하기’에는 2개, ‘집기기구 관리하기’에는 2개, ‘소모품 관리하기’에는 3개, ‘소독물 관리하기’에는 1개, ‘약품 관리하기’에는 6개, ‘의료장비 관리하기’에는 2개, ‘위임하기’에는 3개, ‘평가하기’에는 2개, ‘직원교육하기’에는 7개, ‘감염관리하기’에는 9개, ‘사고예방’에는 7개, ‘치료적 환경 제공하기’에는 6개, ‘보고하기’에는 2개, ‘간호 기록하기’에는 4개, ‘간호정보 입력하기’에는 18개, ‘업무 협조하기’에는 2개, ‘정보공유하기’에는 2개, ‘전문직 역량 강화하기’에는 4개,

Table 5. Degree of Criticality, Difficulty, and Frequency of Task

(N=69)

Task	Criticality			Difficulty			Frequency		
	M±SD	Rank	Whole rank	M±SD	Rank	Whole rank	M±SD	Rank	Whole rank
A1. Observation	4.09±0.59	3	22	3.05±0.56	2	35	3.59±0.65	4	30
A2. Listen to information	4.00±0.62	4	33	2.89±0.72	4	47	3.79±0.77	2	20
A3. Measuring	4.21±0.74	1	10	2.42±0.98	5	59	4.00±0.74	1	10
A4. Confirming laboratory results	4.10±0.87	2	21	2.93±1.07	3	43	3.71±0.94	3	22
A6. Information analysis	3.72±1.21	5	57	3.35±1.12	1	10	3.51±1.05	5	35
B3. Diagnosis	3.91±0.95	1	43	3.33±0.91	1	12	3.60±0.86	1	29
C1. Goal setting	3.77±0.85	2	55	3.35±0.82	2	11	3.38±0.96	2	41
C2. Confirm of nursing intervention	3.78±1.14	1	53	3.38±1.04	1	5	3.61±1.11	1	28
D2. Specimen collection	4.11±0.96	10	17	2.73±1.04	26	53	3.25±1.28	17	46
D3. Nursing related to tests	3.69±0.91	29	58	2.65±1.02	28	55	3.27±0.90	16	45
D4. Observation	4.05±0.83	15	28	2.91±0.96	23	45	4.00±0.74	5	11
D5. Medication	4.38±0.79	3	4	2.76±1.15	25	52	3.10±0.95	22	52
D6. Hygiene nursing	3.87±1.00	24	47	2.53±0.98	29	57	3.17±1.06	18	47
D7. Respiration maintenance	4.27±0.98	4	8	2.93±1.13	21	42	3.33±1.21	15	43
D8. Excretion maintenance	3.92±0.94	22	41	2.94±1.03	20	41	2.93±1.02	26	56
D10. Skin integrity maintenance	4.17±0.91	5	11	3.32±1.06	5	13	2.91±1.07	27	57
D11. Nutritional management	3.98±0.97	21	37	2.98±1.03	19	40	2.95±1.09	25	55
D12. Helping in exercise and activity	4.04±0.93	16	29	3.17±0.10	12	23	3.17±1.01	19	48
D13. Immobilization management	4.15±0.91	6	12	3.00±0.99	17	38	3.63±0.89	10	27
D14.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4.43±0.79	1	1	3.37±1.06	3	6	3.08±1.08	23	53
D15. Emotional support	3.82±0.98	27	51	3.32±0.93	6	14	3.13±1.04	21	51
D16. Social support	3.84±0.99	25	49	3.36±0.87	4	7	3.14±1.03	20	50
D18. Consultation	3.98±0.88	18	34	3.00±1.06	18	39	4.01±0.83	4	9
D20. Patient education	4.13±0.84	8	15	3.07±0.92	15	31	3.49±0.84	13	36
D21. Counselling	3.78±0.95	28	54	3.07±0.97	16	33	2.96±1.01	24	54
D22. Therapeutic communication	3.83±0.92	26	50	3.20±1.03	11	21	3.54±0.86	12	34
D23. Enhancement of physical comfort	3.99±0.88	19	35	2.79±1.01	24	50	3.93±0.84	6	14
D24. Safety management	4.15±0.80	7	13	3.22±0.91	9	18	3.43±0.88	14	40
D25. Operating room nursing	4.06±1.06	14	26	3.46±1.13	2	2	2.46±1.25	29	59
D26. Control of tissue perfusion	4.01±1.02	17	32	3.48±1.08	1	1	2.60±1.15	28	58
D27. Admission & discharge management	3.89±0.90	23	45	2.72±1.07	27	54	4.15±0.79	2	5
D29. Facilitation of self-care	3.99±0.99	20	36	2.93±1.24	22	44	3.68±1.21	9	23
D30. Facilitation of cerebral circulation	4.09±1.01	12	23	3.22±1.25	10	19	3.57±1.18	11	32
D32. Fulfillment of legal obligations during nursing	4.12±0.85	9	16	3.10±1.01	14	29	4.03±0.86	3	7
D33. To work within a professional posture	4.08±0.92	13	25	3.26±0.99	7	15	3.75±0.98	8	21
D34. Patient care based on nursing ethics	4.10±0.81	11	20	3.24±1.06	8	17	3.83±0.87	7	18
D35. Nursing related to prescriptions	4.40±0.78	2	2	3.11±1.09	13	27	4.23±0.91	1	4
E1. Confirm of goal attainment	4.09±0.97	1	24	3.25±1.10	1	16	3.65±1.12	2	26
E3. Follow-up management	4.03±0.84	2	31	3.13±1.00	2	26	3.68±1.01	1	24
F1. Furniture / utensil management	3.96±0.10	3	40	2.92±1.12	4	46	4.14±0.87	1	6
F2. Consumption management	3.73±0.96	5	56	2.86±1.04	5	48	3.58±0.95	4	31
F3. Disinfection product management	4.03±1.03	2	30	3.10±1.21	2	28	3.84±1.18	3	16
F4. Drug management	4.11±0.89	1	18	3.04±1.00	3	36	3.48±0.92	5	38
F5.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3.87±0.92	4	46	3.17±1.07	1	22	3.95±0.85	2	12
G1. Delegation	3.82±1.02	2	52	3.10±1.00	3	30	3.36±0.99	2	42
G2. Evaluation	3.54±1.01	3	59	3.42±1.05	1	4	3.15±1.00	3	49
G3. Employees education	3.97±0.85	1	39	3.14±0.89	2	25	3.48±0.92	1	37
H1. Infection management	4.26±0.80	2	9	3.08±0.97	2	32	3.81±0.89	3	19
H2. Accident prevention	4.35±0.83	1	5	3.20±1.03	1	20	3.92±0.78	2	15
H3. Supplying a therapeutic environment	4.06±0.90	3	27	3.02±0.94	3	37	3.94±0.82	1	13
I1. Reports	4.14±0.92	1	14	3.15±1.09	1	24	3.68±0.99	3	25
I2. Nursing records	4.00±0.92	3	38	3.05±1.05	2	34	3.83±1.03	2	17
I4. Input of nursing information	4.10±0.81	2	19	2.49±1.02	3	58	4.33±0.61	1	3
J1. Coordination of work	4.29±0.75	2	6	3.36±1.05	2	9	4.02±0.95	2	8
J2. Sharing information	4.39±0.94	1	3	3.43±1.16	1	3	4.39±0.81	1	2
K3.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 competency	3.89±0.86	1	44	3.47±0.98	1	8	3.47±0.94	1	39
L1. Oriental medication	4.28±0.92	1	7	2.76±1.31	2	51	4.45±0.75	1	1
L2. Oriental nursing performance	3.87±0.87	3	48	2.61±0.96	3	56	3.31±1.01	3	44
L3. Oriental nursing education	3.92±0.90	2	42	2.85±0.95	1	49	3.57±0.93	2	33

‘한방투약하기’에는 3개, ‘한방간호수행’에는 7개, ‘한방간호교육’에는 8개로 총 295개의 일의 요소를 결정하였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295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 중 ‘D24-2 주변 위험물 관리하기(4.83)’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D14-3 CPR 적용하기(4.57)’, ‘D14-2 기도개방성 유지하기(4.54)’, ‘A1-7 의식상태 관찰하기(4.54)’, ‘D5-2 근육주사하기(4.54)’ 순으로 나타났고, ‘A2-15 경제적 상태 알아보기(3.10)’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295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 중 ‘D26-3 심부정맥 환자 간호하기(3.67)’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D14-3 CPR 적용하기(3.62)’, ‘K3-4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 집담회 등에 참여하기(3.61)’, ‘J2-2 인수인계하기(3.57)’, ‘A1-23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인지하기(3.55)’, ‘D25-6 양방수술 전 간호하기(3.55)’ 순으로 나타났고, ‘A3-5 혈당 측정하기(2.12)’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무별 일의 수행빈도와 관련하여 295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 중 ‘I4-7 맥박을 입력하기(4.71)’, ‘I4-10 정규 활력징후를 입력하기(4.71)’가 가장 수행빈도가 높고, ‘I4-8 체온을 입력하기(4.70)’, ‘I4-9 호흡을 입력하기(4.68)’, ‘I4-11 낙상기록을 입력하기(4.61)’, ‘I4-12 욕창 기록을 입력하기(4.61)’, ‘L1-3 한방 외용약 투약하기(4.61)’ 순으로 나타났고, ‘D25-7 양방수술 후 간호하기(2.29)’가 수행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간호사 직무분석은 대다수가 양방간호에 대해서만 정리되어 있고 한방간호에 대한 분석[4,15-18]은 2003년[4,18]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날 한방 간호사의 직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의 업무를 새롭게 분석하고 규정하여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다. 일반 양방 간호사의 업무를 분석한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의 간호사 직무분석[13,14]을 비롯하여 노인전문간호사 직무분석[19], 외래간호사 직무분석[20], 중환자실 간호사 직무분석[21],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직무분석[22], 수술실 간호사 직무분석[23] 등 다양한 전문분야별 간호사의 업무 분석은 있으나, 체계화된 한방 간호사 직무분석이 없어 한방 간호사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방병원의 증가와 함께 한방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업무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한방병동에 직접 근무하지 않는 양방 간호사들에게도 한방병동 간호사 업무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도 일부 시간동작 연구설계(Time & Motion Study Design)방법[15], 관찰연구[17] 등이 있으나 서술적 조사연구[4,16,18]가 대부분으로 실제 업무자체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방 간호사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방법론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3,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의 직무분석 결과와 간호사들의 업무기록을 토대로 한방영역을 포함한 간호업무 목록을 작성하고, 부산 경남 지역 한방병동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모든 간호업무에 대해서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종전의 한방 연구에서의 관찰연구와 서술적 조사연구를 넘어 오늘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를 도출하여 적용한 간호업무목록으로 한방간호 직무내용을 기술한 한방직무분석연구이다.

이전의 수술실간호사 직무분석[23]에서는 3년 이상 근무자, 심장외과 중환자실 직무분석[21]에서는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검진센터 직무분석[22], 노인전문간호사 직무분석[19]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공급실 간호사[24], 외래 간호사[20], 한방병원 간호사[17]를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한방병동에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간호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혼자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점을 6개월로 판단하여 한방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한방간호 교육 관련 특성에서 한의사와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내용은 한약처방에 대해 잘 모를 때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한문이 많아 해석이 안될 때 21.8%로 나타났다. Kim[18]의 연구에서는 한약처방에 대해 잘 모를 때 21.5%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의학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18.3%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한문으로 된 처방으로 인해 한방병동 간호사는 한문해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한방에서 사용하는 질환에 대한 명칭이나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8].

대상자의 한방간호 교육 관련 특성에서 한방간호 지식을 배우는 경로는 병원내 공식적 교육35.2%, 병동내 집담회 36.6%

로 나타났다. Kim[7]의 연구에서도 병원 내 자체 교육 47.9%로 나타났고, Kim[18]의 연구에서도 병원의 자체교육이 50.6%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필요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방간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관을 넘어서는 유기적인 교육과정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의학에 대한 기초이론이나 한방치방과 한방 의학용어 등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한방병동간호사로서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한방간호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방간호의 직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Kang 등[4]은 한방병원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 업무는 한약복용, 침 등의 처치에 대한 설명과 발침이라 했고, 한방에서 필요한 간호사의 업무로推拿, 뜸, 부항, 응급시 침요법, 아로마 요법 등과 같은 한방요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양방간호에 대한 내용은 없이 한방간호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 환자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만 제시하였다. Son[16]은 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직무내용을 조사하여 혈압 및 체온 측정, 환자와의 대화 및 환자상태 관찰, 환자의 인계, 투약준비, 처방과 전표의 비교, 환자의 식이연락이 높은 작업빈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한방간호사 업무의 특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Kim[18]은 한방병원 간호사의 업무 수행빈도가 높은 영역은 신체적 간호이고, 다음으로 환경간호, 사회심리 간호, 교육 간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간호 업무 중 활력증상측정, 배뇨, 배변간호, 환자관찰, 간호기록과 같은 직접간호는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한약을 사용한 구강간호하기, 목욕조력, 경락 마사지 시행, 뜸 부항과 같은 한의사 보조하기 등은 수행점수가 낮게 나타나 한방과 관련된 업무수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hn[15]은 일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두 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관찰을 통해 직무를 분석하여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업무로 환자간호업무(43.8%), 간호관리업무(35.5%)를 제시하였고,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Kang 등[17]은 K 의료원 한방병원 8개 병동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가 일주일 동안 기재한 업무기록지를 분석하였으며, 한방병원에서 자주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는 환자중심 영역이고, 환자중심 영역 중 직접간호(29.1%)와 간접간호(24.5%)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이는 양방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단계를 거쳐 한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전반적 업무의 총괄적 직무목록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제시하였다. 직무분석 결과를 보면 임무의 중요도에서는 ‘협력관계형성(4.34)’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임무의 난이도에서는 ‘자기 개발하기(3.47)’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고, 임무의 수행빈도에서는 ‘협력관계형성(4.21)’이 가장 높은 수행빈도를 나타냈다.

한방 병동 간호사의 12개의 임무(duty)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중요하면서 어렵고, 수행 빈도가 높은 임무는 협력관계형성이었다.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가 높은 업무는 간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꾸준히 타 건강관리 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전문적인 질적 간호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방병동 간호사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질적 간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간호수행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난이도나 수행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임상에 익숙해져 있어 어렵지 않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방병동 간호사는 간호수행의 수행빈도가 낮은 반면 한방고유업무와 문서관리에서 수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수행빈도도 낮으나,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항목은 자기 개발하기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를 분석한 Cho 등[23]의 연구, 외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i 등[2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자기관리에 대한 부분을 직무자체와 연계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워함을 의미한다.

한방투약하기, 한방간호수행, 한방간호교육을 포함하는 한방고유업무는 중요도(4.06)는 높으나 난이도(2.74)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빈도에 있어서는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나타나, Cho[12] 연구의 한방 관련 간호업무 2.94점, Kim[7] 연구의 한방 관련영역에서 3.11점의 수행빈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한방고유업무 중 한방투약하기가 중요도(4.28)와 수행빈도(4.46)가 높게 나타났으며, 난이도(2.76)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한방고유업무에서 난이도가 낮은 것은 발침확인하기, 한방요법(훈증, 매선, 기공, 족욕)설명하기 등의 아주 단순한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것으로 사료되며, 한방고유업무 중에서 탕약투약하기, 한약복용법 설명하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약물과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한의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설명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k[25]은 한방간호직무에서 한약복약관리를 하는데 지식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으며,

Kang 등[17]은 간호활동에 대한 한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탕제의 경우 보약과 치료약의 투약시기가 다르므로 한방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방병동 간호사의 업무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환자간호와 한방간호에 할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궁극적으로 환자의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한방병동 간호사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한방병동 간호사 업무내용 기재, 전문가 집단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목록을 도출하고, 임무(Duty) 12개, 일(Task) 59개, 일의 요소(Task element) 295개의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규명한 후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조사하였다.

직무분석 결과 대상자들은 ‘협력관계형성’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였고, ‘환경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임무로 판단하여 환자간호에 있어서 원내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간호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계발하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수행에서는 ‘인력관리’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직접 인력관리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방 병원에 근무하는 한방병동 간호사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한방 간호직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방 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부산·경남 지역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규모별, 소속별,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하는 전국적인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 임상에서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한 실무지침서의 개발, 한방 간호행위의 수가 산정 등의 간호관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방간호업무가 전문분야로의 역할정립을 위해서 한방간호 특수성 파악이 필요하다.

넷째,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방간호업무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방병동 간호사의 역할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방병동 간호사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방간호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방간호 교육 프로그램과 한방분야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Moon HJ.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4;10(1):11-26.
2. Lee MH, Jang GH, Kim IS, Hong YM, Gang YS, Gong BH, et al. *Profession & ethics of nursing*. Seoul: Hyeonmunsa; 2003.
3. Ryu KA. Utilization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Oriental Medical Services-Focused on the Residents of Taegu City-[master's thesis]. Kyungbuk: Kyungsan University; 2001.
4. Kang HS, Kim WO, Lee JM. Oriental Nursing Activity Perceived by Nurses, Doctors, and Patients in an Oriental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3;8(1):41-49.
5. *Oriental Nursing Research*. Oriental College of Nursing. Seoul: Hyeonmunsa; 1998.
6. Wang MJ, Kim JH, Kim YH, Paik SN, Cha NH, Kim JA, et al. Study of educational situation, operation, and cognition of oriental nurs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4; 10(1):126-135.
7. Kim YJ. Role conflict and task performance of nurses in oriental medicine. [master's thesis]. Chungnam: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8. Moon HJ, Shin HS, Yang KM. The study of curriculums on the nursing i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0;5(1):114-119.
9. Kim YH, Lee MK, Lee SJ, Cho MS, Hwang MS. Medication status and adherence of the elderly under home care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1; 22(3):290-301.
<http://dx.doi.org/10.12799/jkachn.2011.22.3.290>
10. Kang SJ. A comparative study on the job stress and satisfaction between the oriental and western ward nurses [master's thesis]. Gwangju: Chosun University; 2005.
11. Lee JS. A Comparative study on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nurse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s and Nurses in western medicine hospitals [master's thesis]. Naju: Dong-Shin University; 2002.
12. Cho YH. The role-conflict of nurses and performing nursing service in oriental medical wards [master's thesis]. Busan: Dong-eui University; 2008.
13. Kim MS, Kim BH, Song JH. *Nurses job analysis*.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00.
14. Park IS, Kang SY, Go IS, Park IH, Park HS, Seo YO, et al. *Nurses secondary job analysis study report*.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12.

15. Ahn YH. An analysis of nursing practice in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97;2(1):54-61.
16. Son MS.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nurse-job for traditional medical ward with that for medicine ward in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Kyung-Hee University; 1992.
17. Kang HS, Cho KJ, Kim KJ, Kim KB, Cho MY, Suh YO, et al. An analysis on nursing activity in oriental hospital. *The Korean Nurse*, 1994;33(5):63-75.
18. Kim JH. Nursing practice and knowledge need for oriental nursing in nurses working at oriental medicine hospitals [master's thesis]. Naju: Dong-Shin University; 2003.
19. Im KM, Seo JM. Task analysis of the job description of gerontological advanced practice nurses in the hospital setting. *Global Health & Nursing*, 2014;4(1):37-47.
20. Yi YJ, Cho KS, Park YS, Lim NY, Kim DO, Kwon SB, et al. Analysis of importance, difficulty, and frequency of nurses's job in outpatient departm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2009;16(2):232-241.
21. Ko YK. Job analysis of the staff nurse in cardiac surgery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3;9(2):265-282.
22. Kim HJ. Nurses'job analysis in the health promotion center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23. Cho KS, Son HM, Kang HS, Kim JH, Lim NY, Yoon KS, et al. Job description of the nurses who work in operating room using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2008;15(4):566-577.
24. Oh ES, Song SD, Choi EJ, Chun HS, Han HS, Ryoo SS, et al. Job description of nurses in central supply department using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4;20(3):303-312.
25. Ok DH. A study on nurses' rol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care [doctor's thesis]. Seoul: Kyung-Hee University; 2000.